

■ 한라일보-초록우산 공동기획 / '어린이를 도울 때 진정한 어른이 됩니다'

# “어려운 시기일수록 꾸준한 기부 중요”

**동남종합건설 고광민 대표**  
1998년부터 아동 후원 계속  
기부로 '그린노블클럽' 가입  
국제청장 표창·국민포장 수상

아버지에 이어 2대째 건설업에 종사하는 (합)동남종합건설의 고광민 대표(57)는 외길을 걸어온 그의 삶처럼 나눔의 길도 묵묵히 걸어가고 있다. 한라일보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공동기획한 '어린이를 도울 때 진정한 어른이 됩니다' 캠페인의 네 번째 주인공으로 고광민 대표를 소개한다.

고 대표가 운영하는 동남종합건설은 도내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건설회사다. 아버지를 이어 건설 외길을 걸어온 고 대표의 경영철학은 동남종합건설을 장수 기업으로 만들었다. 그의 이런 '고집스러운 꾸준함'은 기부 습관에도 고스란히 녹아들었다. 고 대표는 "아이들에게 조그마한 힘이라도 보태려고 시작한 기부가



23번째 기부를 해오고 있는 동남종합건설 고광민 대표(사진 오른쪽)가 인터뷰를 마친 뒤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공

별써 23번째를 맞고 있는지 모르고 지냈다"며 "처음 기부를 권유한 사촌 동생 덕분에 너무나 보람된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 대표는 지금까지 기부를 이어갈 수 있던 비결로 옆에서 든든히 지지해 준 가족을 꼽았다. 그는 "살림에 보태야 할 월급의 일부를 기부하는 것이니만큼 가족들의

지지가 무엇보다 중요했다"며 가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나타냈다. 고 대표의 선행을 보고 자라는 아들도 어느새 나눔을 시작했다. 고 대표의 아들은 올해 받은 재난지원금에 사비를 보태 100만원을 기부했다. 고 대표는 경기가 어려울 때도 주위를 돌아봤다. 도내 건설경기가 본격적으로 침체하기 시작한 2018년

이후에도 그는 9000여만원을 선택 내놨다.

고 대표는 "경기가 안 좋을 때일수록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가 더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앞으로도 30년을 넘어 오랫동안 기부를 이어가는 것이 작은 소망이다"고 말했다.

고 대표는 한국자유총연맹 제주시 지회장을 역임하며 아동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봉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회원들과 함께 해안가에서 환경정화활동을 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김장김치 행사도 진행했다. 나라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광복절 태극기달기 캠페인도 전개했다. 그는 지역과 나라를 위해 헌신한 공을 인정 받아 최근 국민포장을 수상했다.

고 대표는 "한 우물만 계속 파다보니, 꾸준함이 몸에 배었다"면서 "기부는 꾸준히 실천했을 때 효과가 배가 되는 것 같다"고 밝게 웃었다.

※후원 문의=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지역본부 (064-753-3703).

이상민기자 hsm@ihalla.com

## 광역음식물류 처리시설 공사 정상화 지법, 낙찰자 선정절차 중지 가처분 소송 '가각' 결정

소송에 휘말리며 한동안 공사가 중지됐던 제주도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공사가 법원의 가처분 '가각' 결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12월 일괄입찰(일명 '턴키') 방식으로 광역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입찰공고하고 지난 5월 초 1순위 적격업체(태영건설 컨소시엄)를 선정했다.

하지만 3순위 업체가 '경관관리계획(경관가이드라인)의 절성도 기준(3m 이하)'을 위반했는데도 이를 간과한 채 적격업체로 선정된 것은 법령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낙찰자 선정절차 중지 가처분 소송을 법원에 제출하며 최근 공사가 중단됐다.

이에 따라 도는 관련 부서 및 변호사 등으로 TF를 구성해 입찰 절차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제주도감사위원회에 입찰 절차에 대한 감사서를 의뢰했다.

도는 점검과정에서 입찰안내서 해석과 관련 규정 적용에 일부 오해 소지가 있었음을 확인했지만 이 같은 문제점이 입찰 전체를 무효로 할 정도로 중대·명백한 하자로 보기 어렵고, 절차를 다시 진행할 경우 1년여의 기간이 추가 소요되는 등 사업 지연으로 인한 도민 불편 등을 감안해 가처분 소송 결과에 따라 사업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제주지방법원은 9일 "이 사건 입찰안내서는 경관관리계획 가운데 '경관단위별 관리계획'을 준수하도록 돼 있어 해당 경관단위에 관한 지침(㉔ 권역)을 적용할 수 있다"며 "평가위원회의 구성이나 평가방법 등이 경험적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그 평가결과는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을 결정했다. 백금탁기자

## 코로나19 제주 49번 확진자 발생

지난 8일 미국에서 입국

제주지역 49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9일 오후 1시 30분쯤 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통보 받고 역학조사에 착수했다.

49번째 확진자 A씨는 지난 8일 미국에서 입국, 이날 입도해 제주국제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 후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

았다. 현재 코로나19 관련 증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A씨는 검체 채취 후 방역차량을 이용해 자택으로 이동, 자가격리 중이었다. 도방역당국은 A씨를 제주대학교병원 음압병상으로 이송해 격리 치료하고 있다.

도방역당국은 역학조사를 통해 A씨가 입도 시 이용한 항공기 내의 접촉자 등에 대한 신원을 파악하고 있는 데 조사 결과가 확인되는 대로 즉시 공개할 방침이다. 오은지기자

## 제주교육지원금 '식비'로 가장 많이 썼다

도교육청 사용자 현황 발표

학생 1인당 30만원씩 지원한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의 사용처가 '식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집계된 '제주교육희망지원금 매출 현황'을 9일 발표했다.

먼저 교부 현황을 보면 총 7만 5404매 가운데 99.9%인 7만5308매(225억9200만원)가 교부됐다.

사용 금액은 총 214억74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업종별로 보면 슈퍼마켓 등 유통업 매출이 73억원으로 전체 매출에서 가장 높은 34.2

%를 기록했다. 이어 외식업 51억원(23.7%), 학원업(문구·서적 포함) 37억원(17.1%), 의료업 9억6000만원(6.1%) 등이었다.

제주교육희망지원금 선불카드의 유효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유효기한이 만료된 후에는 사용이 불가하며 잔액은 환불 및 보상되지 않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용처 분석 결과 슈퍼마켓과 외식업이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식비와 생필품 구입비 등이 가정에 가장 긴급히 필요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은범기자

## 올 여름 제주기온 월별로 들쭉날쭉

역대 가장 길었던 장마 영향으로 올 여름 월별 기온이 들쭉날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지방기상청이 9일 발표한 '2020년 제주도 여름철 기상특성'에 따르면 지난 6~8월 평균기온은 24.9℃로 평년(24.8℃)과 비슷했다.

그러나 월별로는 기온 변화가 평년에 비해 컸다. 월별 평균 기온은 6월 22.4℃, 7월 23.8℃, 8월 28.4℃로, 6월과 8월은 평년보다 각각 0.8℃, 1.4℃ 높았던 반면 7월은 평년보다 1.9℃ 낮았다.

기상청은 6월부터 시작된 장맛비가 7월까지 이어져 평년보다 낮은 기온을 보이다 8월에 폭염과 열대야가 집중되며 기온이 평년보다 높았던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태풍은 북서태평양에서 평년(11.2개)보다 적은 8개가 발생했으며 이 중 장미, 바비, 마이삭 등 3개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상민기자 hsm@ihalla.com



태풍 '하이산'이 몰고온 퇴적물 9일 제주도 이호해수욕장 백사장에 지난 태풍 때 파도에 밀려온 퇴적물들이 쌓여 있다. 강희민기자

## “생활임금 12.6% 인상해야”

민주노동 제주분부는 9일 제주특별자치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원에서 1만1260원으로 12.6% 인상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실질적인 생활임금 효과를 높이고 소득 보증을 위해서는 인상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생활임금을 민간부분까지 확대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단계별 이행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제주도 예산 보조 대상 사업체와 하수

급인이 고용한 노동자도 생활 임금 지급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제주도는 2017년부터 생활임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급 대상자는 도 및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 사무 수행 기관 소속 근로자와 공공근로사업 참여 근로자다. 이상민기자

**“제주솔라에너지”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젊은 열정을 찾습니다**



**2020년 하반기 사원모집**

**모집기간** 2020년 8월 ~ 채용시까지 수시 모집

**지원방법** 워크넷/이메일/방문/우편으로 지원서류 제출

**지원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모집직종**

**태양광 발전설비 시공 및 A/S 기술자**  
- 경력자 또는 해당분야 자격증 보유자 우대  
- 팀단위 협력 파트너(하도급) 별도 상담

**전기 및 토목 분야 기술자**  
- 공사/설계/공무/인허가 경력자 우대  
- 해당분야 자격증/경력수첩 보유자 우대

**주택용 태양광 보조신청 접수**

- 한국에너지공단 지원사업 추가접수중
- 주택용 태양광 3kW 공사비 50% 보조
- 자부담금 251만원
- 선정방식 : 선착순 (예산소진시 종료)

**지금 전화로 신청하십시오!**

**태양광은 제주솔라에너지 742-5775**

태양광발전 전문기업 2019~2020 제주에너지공사 참여기업\* 2020 한국에너지공단 참여기업\* 및 AS전문기업 제주시 노형로 356 www.jejuSolar.co.kr

\*참여기업은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인력, 시공실적, 회사신용도 등의 심사를 통해 매년 선정되며, 지원(보조)사업을 정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검증된 기업입니다.